

◀기쁜 우리 날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최용우

저는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참 어리숙하고 바보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속이고 깔보는 사람은 싫습니다.
저의 약함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나무라고 탓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저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예리하고 정확하고 똑 부러지게 다른 사람의 잘못
이나 흠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정의의 사도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맘에 안 들어도 겉으로 표내지 않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면
서 가능하면 눈감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땐 그랬지 ▶ 어니언스의 “편지”

“♪ 빠 바바밤~ 빠 바바밤~ 빠~바바 빠~바바 빠~바 ” 드럼의 비트에 실린 가느다란 바이올린의 전주가 나오면 산란해진 마음은 이미 손 쓸수 없을 만큼 혼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멍뚱~린 내 가슴~에...’ 부분에 가면 남 몰래 담고 있던 사랑의 상처들을 절규하듯 눈감고 불렀습니다. 그때 한 레코드판 안에 실렸던 ‘저 별과 달을’ ‘외기러기’ ‘초저녁 별’ ‘사랑의 진실’ 등 대부분의 곡을 히트시킨 가수가 어니언스 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임창제 씨가 TV에 나와 부르는 ‘편지’ 를 들을 때면 그의 목소리가 조금은 갈라져있어도 내 가슴은 아직 처음처럼 두근거립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8월 12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2)



11.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왜 내가 멍에 속에 있겠는가? (갈5:1)
12.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가 정죄받은 것처럼 두려워하겠는가? (롬8:1)
13.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외로워하겠는가? (마 28:20, 히 13:5)
14.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끼겠는가? (갈3:13,14)
15. 바울 사도처럼 내가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왜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빌 4:11)
16.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겠는가? (고후5:21)
17.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데, 왜 내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겠는가? (롬8:31)
18.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데, 왜 내가 혼란에 빠지겠는가? (고전14:33,2:12)
19.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겠는가? (롬8:37)
20. 예수께서 세상과 세상의 환란을 모두 이기신 것을 알고나니 담대함이 있는데, 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겠는가? (요16:33)

◀말씀따라 행하기▶
성도는 무릇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성도다워야 한다

◀인품따라 행하기▶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찬양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Hymn	29 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0(시편 139)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400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10:43-4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리더십은 성김이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1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558	총액: \$ 380,281.70
--------	--------------	-------------------

◆8월 예배위원◆

◆8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주 일	모임 행사
29	김반석		본당: 권사		
5	노은숙		현관(1)김교섭 이광희	5	30여 헌신예배(8) 구역예배(10)
12	박일영		현관(2)정덕수 박일영	12	광복기념주일 찬양간증집회(15)
19	백재성		새교우: 이광희 이근평	19	
26	양경배		윤주야 장유진	26	이삭줍기주일 남녀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 7:00 pm

오늘은 일제 강점기를 걷고 우리나라 찾은 것을 기억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힘이 없어 빼앗기고 빼앗기고도 설움당해야 하는 정글 나라들의 법칙. 그러나 우리는 힘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헌법이 있어 살맛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 금주 수요예배는 『최덕신 찬양간증 수요집회』로 드립니다.
*학교측 행사관계로 St David's Church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시> 15일(수) 저녁 7:30 <장소> St David's Church
*작곡자겸 찬양사역자인 최덕신씨가 직접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를 기대해봅니다. (주차: 마오리교회, 교회 주변 사무실빌딩을 이용해 주세요)
*장신동문교회들이 함께 모여 수요예배로 드립니다.
- 항조직 기초 신앙생활공부: "Morning Alpha 성경공부"
*<일시> 8월 5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2:40분-3:40분. 성가대연습실.
- "Morning Alpha 성경공부" <장소> 교회사무실 <일시> 매주 토요일 7:30am.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의>: Alpha 1기 박병민 집사
*장소협소로 금주까지 한 분만 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11월 예정)
*진행위원들의 수고와 진행에 많은 기도와 협조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부된 기부품목을 통해 성전건축을 위한 교우들의 응원바랍니다.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5:50 AM>
*요즘 새벽은 아직 잠든 시간이 아니라 일찍 시작하는 이른 아침처럼 상쾌합니다
들어 주시고 응답하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새벽이 되십시오

◀작한 시인들▶ 참 회 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줄에 주리자
—만 이십 사년 일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든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줄의 참회록을 써야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든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밀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속에 나타나온다.

쇠락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
라를 지켜내지 못한 속죄의 마
음을 가슴을 찢듯 시인은 아파
하며 고백합니다.
암울한 일제치하에는 녹이 낀
시간들로 살아가지만 어느 즐거
운 날이 반드시 오리라 기대하
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가 이
국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야
했던 시인의 아픔.
더 이상 부끄러운 우리의 참회록
이 쓰여지지 않도록 조국을 가
슴에 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
가야 하지 않겠나...